

1996년 38세의 나이로 타계한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는 1980-90년대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가 제시한 현대미술의 새로운 개념과 형식은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57년 쿠바에서 태어나 1979년 뉴욕으로 이주한 그는 제 3세계 이민자이자 성적 소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굴레에 속박되는 대신 주류미술계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내파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확보했다. 그의 작품들이 미니멀리즘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관객의 참여에 의해 끊임없이 변형, 파괴되는 것은 그의 대표적인 전략이다. 뉴욕대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사회적 풍경'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던 그는 후기구조주의 철학에 정통하여 언어로 대표되는 관습적인 역사와 사회 시스템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다. 예술에서의 고정된 관념과 기념비성, 작가의 전권을 부정한 그는 관객의 참여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의미의 변화를 겪는 예술이야말로 진정한 영속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빌보드, 시계, 거울, 사랑, 전구, 퍼즐, 인쇄물 더미, 텍스트 등 일상적이고 한시적인 재료로 만든 작품들은 현대미술이 다루어야 할 공공성에 대한 진지한 제안임과 동시에 사랑과 죽음이라는 매우 사적인 삶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연인 로스 레이콕의 때 이른 죽음과 그 자신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서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소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하지만, 끊임없이 채워지는 재료와 관객에 의해 확장되는 작품의 해석은 재생과 영속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1980년대의 사회, 정치비평적 작업에서부터 1990년대의 존재론을 다루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업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시적인 은유와 정치적인 발언을 동일 선상에서 다루는 독자성을 갖는다.

아시아 미술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의 개인전을 개최하는 플라토는 동일한작품의 일부를 리움에서 반복, 변형하여 'Double'이란 주제로 전시함으로써 작가의 아이디어를 변형된 설치의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현대미술의 의미와 자기성찰의 측면을 제시한 곤잘레스-토레스의 작품세계는 그가 세상을 떠난지 1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전시를 통해 현재진행형의 의미로서 공유되고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Felix Gonzalez-Torres, who died at the early age of 38 in 1996,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rtists of his generation whose legacy still remains strongly present in the current art historical discourse.

Born in 1957 in Cuba and immigrated to New York City in 1979, the artist did not allow his racial and sexual minority status to marginalize his presence in the art world, instead developing his own unique body of work by appropriating the existing visual language of modernism. At the same time, he actively engaged the viewer in his works, subverting the contemporary art practice through its endless transformation and destruction of form. The artist, who was initially trained as a photographer, was also well-versed in the theories of post-structuralism and continuously questioned the authority of the subject. Challenging tradition, monumentality and even his own authority as an artist, Gonzalez-Torres emphasized the mutability of meaning and form through viewer participation in order to keep his work alive.

Utilizing everyday objects such as billboards, clocks, puzzles, candies and paper stacks, Gonzalez-Torres's oeuvre profoundly examined the 'public' function of contemporary art, whilst presenting strictly private contemplations on love and death. While the loss of his partner, Ross Laycock, and his own pending death as AIDS patient were inevitable realities to the artist, the endless supply of materials and infinite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 in his work reveal the artist's own desire for permanence and renewal. From the socially critical works of the 1980s to the more contemplative and poetic works of the 1990s, his oeuvre achieves its distinct perspective through the juxtaposition of the private and public, as well as the poetic and political.

As the first museum presentation of Gonzalez-Torres's work in Asia, the current exhibition proposes a dual presentation at both PLATEAU and Leeum through the repetition and reconfiguration of identical works under the theme of 'Double'. Exploring the endless possibilities of form and meaning unique to Gonzalez-Torres's oeuvre, this exhibition hopes reflect the continuing vitality of his art, which continues to inspire countless artists in contemporary art today.



Class Pavilion

로댕의 '지옥의 문'이 상설전시된 글래스 파빌리온에는 로댕의 작품과 마주하여 대조를 이루는 전구 설치작품 "무제"(북녘)과, 전시장 입구에서 관객과의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는 "무제"(시작)이 설치된다. 두 작품 모두 빛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빛으로 충만한 전시공간 속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표출한다.

글래스 파빌리온 중앙에 설치된 "무제"(북녘)은 작가가 연인 로스 레이콕이 사망한 1991년을 시작으로 제작한 24점의 전구작품 중 하나로, 전구들의 따뜻한 온기와 불빛으로 인간의 일시적인 생명력을 상기시킨다. 작품의 부제 "북녘"은 작가의 출생지 쿠바에서 북녘의 땅 미국을 일컫는 말로, 쿠바인들에게 자본주의와 자유의 꿈을 상징하는 말이다. 또한 작가에게는 매우 개인적인 의미로서, 그의 연인 로스가 작가를 만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캐나다에 거주했던 점을 생각할 때 북녘은 연인에 대한 그의 사랑과 그리움의 의미를 담기도 한다. 전구선 시리즈의 모든 작품들은 동일한 재료와 형태로 제작되지만, 그들의 부제가 암시하듯 각자만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한 작품은 지정된 설치형식에 제한되지 않고 매번 전시기획자의 의도대로 재구성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리움 로비에 동시 설치되는 또 다른 전구선 "무제"(스톡홀름을 위하여)와 더불어 다른 장소에서 자유롭게 변모하는 작품들의 대비를 통해 작가의 작품세계의 본질인 '의미와 형태의 유연성'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n the Glass Pavilion, Gonzalez-Torres's "Untitled"(North) and "Untitled"(Beginning) will be juxtaposed with the permanent installation of Rodin's *The Gates of Hell*, presenting a dramatic contrast that is emphasized by the glass architecture's natural lighting. "Untitled"(North) is part of a series of 24 lightstring installations the artist began in 1991, the year of his partner Ross Laycock's death. All of the works in this series are made of identical material and form, yet each work is considered unique as suggested by their individual subtitles. The method of installation also changes each time according to the preference of the curator. In this exhibition, "Untitled"(North) is accompanied by another lightstring work "Untitled"(For Stockholm), installed in the lobby of Leeum, in order to demonstrate the 'malleability of meaning and form' that is the core of Gonzalez-Torres's oeuvre.

"무제" (북녘) "Untitled" (North) porcelain sockets and extension cords, 1993, Courtesy Marieluise Hessel Collection, Hessel Museum of Art, Center for Curatorial Studies, Bard College, Annandale-on Hudson, New York



Gallery A1

A1 전시장에는 사랑과 죽음에 대한 작가의 성찰을 담은 사진과 종이스택 작품들이 소개된다. “무제”(앨리스 토클라스와 거트루드 스타인의 묘지, 파리)는 곤잘레스-토레스의 대표적인 사진작품 중 하나로, 선구적인 여류 문학가이자 공개적인 레즈비언이었던 거트루드 스타인과 그녀의 연인 앨리스 토클라스가 함께 묻힌 파리의 묘지 위에 마치 사후에도 함께한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듯 만개한 꽃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벽면을 둘러싼 설치작품 “무제” (1991-1993)와 함께 병치된 종이스택 “무제”(환영幻影)은 광활한 하늘과 그 너머 미지의 땅에서 비취오는 햇살의 풍경을 담고 있다. 특히 “무제”에서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는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로서, 시한부였던 그가 죽음 또한 마치 삶과 같은 하나의 여정으로 그리며 자신을 위로했던 희망의 상징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Gallery A1 introduces a series of photographs and paper stack installations that reflect the artist's introspection on the themes of love and death. “Untitled”(Alice B. Toklas' and Gertrude Stein's Grave, Paris) is a photograph which captures the flower blossoms over the graves of writer Gertrude Stein and her partner Alice B. Toklas, which seem to symbolize the couple's eternal love. On the other side, the wallpaper installation “Untitled” and paper stack “Untitled”(Aparición) present a vast skyscape and a lone flying bird, frequent motifs in Gonzalez-Torres's work, which perhaps represent a hopeful emblem for the artist in metaphorically depicting the journey between life and death.

“무제” (앨리스 토클라스와 거트루드 스타인의 묘지, 파리)
“Untitled”(Alice B. Toklas' and Gertrude Stein's Grave, Paris)
Framed C-print, 1992, Courtesy of The Capital Group Companies, Inc., Los Angeles, California

“무제” (환영幻影) “Untitled” (Aparición)
Print on paper, endless copies, 1991, Private Collection

“무제” “Untitled”
Paint on wall, 1989
Sammlung Hoffmann, Berlin



Gallery A2

A2 전시장의 두 작품 “무제”(자연사박물관)과 “무제”(고고댄싱 플랫폼)은 작가의 1991년 개인전에서 함께 소개되었던 작품들로 당시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그의 비판적 시각을 대변한다. 벽면에 설치된 “무제”(자연사박물관)은 뉴욕 자연사박물관 설립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미국의 26대 대통령 테오도어 루스벨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공덕을 조각한 박물관 외벽을 찍은 사진작품이다. 12점의 사진들은 각각 작가, 정치가, 학자, 인도주의자, 사학자, 애국자, 카우보이, 환경보호가, 모험가, 박물학자, 과학자, 그리고 군인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단어들은 이성애자 백인 남성 중심의 미국 주류사회가 칭송하는 남성상이며, 결과적으로 동성애자 남성은 그들의 성적 기호만으로 이 덕목들에서 자연히 제외된다. 마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듯 작가는 이 사진들 앞에 하늘색 플랫폼을 설치하고 그 위에서 은색 수영복을 입은 고고댄서가 하루에 5분씩 댄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나타나 혼자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도록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작품의 병치는 사진들이 상징하는 사회적 위상을 완전히 전복시켰다. 성의 자유, 특히 동성애의 표현이 금기된 사회에서 다른 남성(혹은 여성)의 성적 욕망과 응시의 대상을 당당히 자처하는 이 댄서야말로 시대에 맞선 진정한 ‘군인’이고 ‘인도주의자’이며 ‘모험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n Gallery A2, “Untitled”(Natural History) and “Untitled”(Go-Go Dancing Platform) from 1991, express Gonzalez-Torres's critical view against the social climate of the time. The series of photographs in “Untitled”(Natural History) show the twelve public virtues (soldier, explorer, statesman, and so on) of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inscribed on the sculptural façade of the American Museum of National History in New York. In contrast to these images, a light blue platform on which a male go-go dancer clad in a silver lamé bikini appears and dances for five minutes everyday sets a juxtaposition between these works, which not only subverts the dignity of the photographs, but also raises a provocative suggestion, one which presents the dancer as a true ‘soldier’ and ‘explorer’ of our time who willingly and openly expresses his sexuality against social taboo.

“무제” (고고댄싱 플랫폼)
“Untitled”(Go-Go Dancing Platform)
Wood, light bulbs, acrylic paint and Go-Go dancer in silver lamé bathing suit, sneakers and personal listening device, 1991
Kunstmuseum St. Gallen on permanent loan from a private collection

“무제” (자연사박물관)
“Untitled”(Natural History)
Framed black and white, photographs, 1990, Private Collection, New York

전시장에서 이어지는 긴 복도와 비디오 룸에는 작가의 '데이트라인' 작품들과 텍스트 자화상이 소개된다. "정보는 범람하지만 의미는 퇴색되어 간다"는 작가의 말처럼 역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이 작업들은 대중에게 역사의 유효성을 재확인시키고자 했다. 벽면에 설치된 '데이트라인' 시리즈의 두 작품들은 대중문화와 역사의 다양한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관련된 주요 연도를 임의적으로 나열해 연대순에 따른 단선형 서사를 거부하고 새로운 해석과 의미 확장을 유도한다. 또한 어떠한 이미지도 제시하지 않은 채, 텅 빈 텔레비전 화면을 연상시키는 작품의 검은 여백은 관객들이 자신의 인생을 투영하고 중첩시켜 역사의 의미를 퇴색되도록 한다.

전시장 천정에는 작가의 자화상 "무제"가 전시된다. 1989년에 처음 제작된 이 작품 역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더불어 개인적 추억들과 그 연도를 함께 나열한다. 작품의 특징은 작가가 처음 지정한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작품이 설치될 때마다 전시 기획자에 의해 특정 사건들이 더하고 빠지면서 변화하는 것인데, 전시 장소나 재료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재탄생하고 재해석되는 그의 작품들처럼 자신 또한 죽음의 한계를 넘어 사후에도 끊임없이 관객들과 소통하고 거듭나고자 하는 작가의 희망을 드러낸다.

In the video room, two photostat works from the artist's 'dateline' series are on display. Arising from a generation where "there is an explosion of information, but an implosion of meaning", according to the artist's own words, these works attempt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history that is being quickly forgotten. The works list seemingly unrelated events in history and pop culture in arbitrary order, rejecting the conventional linear narrative and allowing for infinite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 Mimicking empty television screens, the blanks spaces of the photostats encourage the viewers to project their own lives unto the space and reiterate the significance of the events.

Similarly, the artist's self-portrait "Untitled", 1989 also lists the important personal and historical events throughout his life. The unique aspect of this portrait is that its content transforms with each presentation. Like the malleability of his work, which becomes constantly renewed and reinterpreted, the portrait reveals the artist's desire to continuously evolve with the viewers even after his death.

"무제" (초상) "Untitled" (A Portrait)
Video: 5 minutes on 60 minute loop, pedestal: approximately 76.2 cm high, width depth variable, video, monitor, pedestal and chairs, 1991/1995, Sammlung Hoffman, Berlin

B 갤러리는 대규모 설치작품과 작은 소품들을 병치해 형태와 재료에 얽매이지 않은 곤잘레스-토레스만의 시적이고 명상적인 예술세계를 소개한다. 8미터의 높은 천정에서 바닥으로 이어지는 유리창을 감싸는 설치작품 "무제"(러버보이)는 작가가 '행복한 추억의 색'이라고도 표현한 열은 하늘색으로 전시장을 물들인다. 언제나 양쪽의 배수로 창가에 매달아 바람에 휘날리도록 설치되는 이 작품은 애뜻함이 담긴 부제가 속삭이듯이 삶과 죽음의 연약한 경계에서 함께했던 그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듯 하다.

그리고 이와 마주한 "무제"(플라시보)는 500kg에 육박한 작가의 가장 기념비적인 사랑 작품이다. 실제적 효능 없이 환자를 달래기 위해 처방하는 '위약'을 의미하는 작품의 부제는 에이즈 발병 이후 수 천명의 사망자에 이르러서야 시작된 미국 정부의 뒤늦은 임상실험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플라시보'는 카톨릭교에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저녁 기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관객 참여를 통해 서서히 소모되는 이 사랑 더미는 일견 삶의 덧없음과 소멸을 의미하는 듯 하지만, 영원히 다시 채워지게 됨으로써 부활과 재생, 영속에 대한 작가의 열망을 내포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벽면에는 작고 희미한 사진들로 구성된 퍼즐 작품들이 소개된다. 눈 위의 발자국, 커튼 뒤로 드리워진 누군가의 그림자를 담은 이 작품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의 흔적울 은유적으로 그리며, 마치 한 순간 흩어져 버릴 퍼즐 그 자체처럼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성찰한다.

Presented in Gallery B is a unique juxtaposition of the artist's monumental installations with his small but equally powerful and poignant puzzle pieces.

On the floor, "Untitled"(Placebo) is the artist's most monumental candy spill weighing approximately 500kg. With its subtitle 'placebo', the work partly alludes to the unresponsive U.S. government and its delayed clinical trials during the AIDS crisis. On the other hand, 'placebo' also signifies the Catholic vespers for the dead. Thus this endlessly replenished candy pile, which slowly diminishes by the participation of the viewers, at once represents the ephemerality of life but also reveal the artist's desire for permanence and renewal.

In contrast to these works, the small puzzles made of photographic snapshots are presented on the walls. Capturing the fleeting moments of life, like the footprints in the snow and the hazy shadow hidden behind the curtain, the pieces serve as reminder of the fragility of life that is as frail as the puzzles themselves.

"무제" (플라시보)
"Untitled" (Placebo)
Ideal weight: 454-544 kg, candies individually wrapped in silver cellophane, endless supply, 1991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Gift of Elisa and Barry Stevens, 1991

"무제" (러버보이)
"Untitled" (Loverboy)
Blue fabric and hanging device, 1989, Hamburger Kunsthalle, Hamburg, Germany

이번 전시는 'Double'이라는 주제로 작품의 끊임없는 재해석과 의미확장을 추구해온 작가의 예술세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플라토의 전시 공간 외 다양한 장소에서 작품들의 동시다발적 전시를 시도하고자 한다. 시리즈와 에디션은 물론, 동일한 작품이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설치 가능하며 독자적인 작품으로 인정되는 곤잘레스-토레스의 고유한 작품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품들의 색다른 변형과 반복을 통해 의미와 형태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본다.

Under the theme of 'Double', this exhibition hopes to reflect the unique nature of the artist's oeuvre, which continuously strives towards reinterpretation and new meaning. By repeating parts of the exhibition in multiple locations outside PLATEAU and utilizing the editions and simultaneous manifestation of unique works, the exhibition attempts to demonstrate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form and meaning through various ways of re-presentation and reconfiguration of Gonzalez-Torres's works.



Leelum Lobby
 삼성미술관 로비에에는 플라토 글래스 파빌리온에 전시된 "무제"(북녘)와 상응하는 전기선 작품 "무제"(스톡홀름을 위하여)와 함께 동일작품 "무제"(시작)이 반복되어 소개된다. M2 전시장 입구의 "무제"(시작)은 곤잘레스-토레스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관객과의 직접적인 신체 관계를 드러내는데, 입구나 통로를 가로막아 설치됨으로써 관객은 작품과의 물리적 접촉을 피할 수 없다. 마치 인체의 DNA나 알약 등을 연상시키는 비즈의 독특한 형태는 사랑 작품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또 다른 비유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 더미들이 소멸을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면, 이 작품은 관객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맞닿으며, 더욱 밀접하고 에로틱한 경험을 선사한다. 사람 간의 스킨십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즈라는 재앙은 많은 이들에게서 그 권리를 박탈했다. 또한 질병때문에 사회적으로 퍼져나간 신체 접촉에 대한 공박을 고려할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공포의 대상이 된 당시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 짐작할 수 있다.

PLATEAU & Leelum
 "Untitled"(Perfect Lovers)
 "무제"(완벽한 연인들)은 한 쌍의 동일한 레디메이드 원형시계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설치 직전 동시에 전지를 넣어, 같은 시간을 반영하도록 한다. 하지만 영원히 함께 할 듯한 이 시계들은 결국 기계적 차이로 자연스럽게 어긋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는 먼저 멈추게 된다. 일생의 연인 로스 레이콕이 작가와 함께한 8년의 대부분을 에이즈로 투병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들에게 1분 1초가 갖는 애뜻함과 소중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평범한 듯한 두 시계는 그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죽음을 여실히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형태는 곧 동성의 사랑을 상징하며 동성애 혐오에 대한 작가의 작지만 강렬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총 3점의 에디션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모든 에디션이 함께 전시된다. 전시장이 아닌 일상적인 공간에서 작품이 전시되기를 선호했던 작가의 뜻에 따라 에디션들은 플라토 전시장 출구와 아트샵, 그리고 리움 대표소까지 확장된 공간에서 관객과 마주하며 서로 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무제" "Untitled"
 Dimensions vary with installation, billboard, 1991,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Gift of Werner and Elaine Dannheisser, 1996
 설치 전경 Installation views:
 1 테평로빌딩 Taepyeongno Building, Seoul
 2 중앙일보사 JoongAng Daily Building, Seoul

PLATEAU & Samsung Life Scocho Tower
 "Untitled"(Rossmore II)
 플라토의 A갤러리와 동시에 삼성생명 서초타워 로비에에는 작가의 사랑작품 "무제"(로스모어III)가 설치된다. 1991년 제작된 이 작품은 작가가 연인 로스 레이콕의 마지막 나날을 함께 했던 로스엔젤레스의 추억을 담은 작품으로 부제 '로스모어'는 그들이 살았던 도로명이며 작품의 색은 그 도로 위 잔디를 유유한다. 우연히도 '더 많은 로스(Ross More)'의 뜻을 지니기도 한 이곳의 이름을 작가는 남달리 사랑했으며, 서서히 소멸되는 사랑은 마치 그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연인과의 행복한 시간과 같은 애뜻함을 남긴다.
 다른 사랑더미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은 작가가 지정한 '이상적 무제'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재현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변 공간을 활용했던 작가의 기호를 반영해 각 장소의 예상치 못한 숨은 공간에서 새롭게 변모하는 작품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미술관과 사무공간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작품은 다양한 관객들과 접하게 되며 의미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게 된다.

Outdoor Billboards "Untitled"
 어떠한 부제나 설명 없이 오로지 두 사람이 함께 누워있었던 흔적만이 남은 침대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도심 곳곳의 광고판에 24의 약수로 설치된다. 작가의 연인 로스가 사망한 1991년에 제작된 이 빌보드는 인물의 부재와 텅 빈 여백에서 연인을 잃은 작가의 공허함과 상실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지의 단순함과 모호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화면 위의 침대가 연상시키는 개인적인 기억과 경험을 투사하게 만든다. 이처럼 가장 사적인 장소와 행위를 가장 공적인 장소와 환경으로 전위시키는 작가의 전략은 주제와 타자와의 구분이 무의미한 현대적 삶에 대한 사유를 반영한 것이다.

PLATEAU & Scocho Tower
 "Untitled"(Rossmore II)
 Another candy spill work in the exhibition, "Untitled"(Rossmore II) will be simultaneously on display at PLATEAU and the lobby of Samsung Life Scocho Tower. Evoking the memories of their last days together, the subtitle 'Rossmore', alludes to Rossmore Avenue, the road where the artist lived with his partner until his death. The artist also stated that he especially loved the name of the place as it also coincidentally meant "more Ross". As if reflecting the fading memories of the past in one's mind, the diminishing candies bring particular poignancy to the work.
 Outdoor Billboards "Untitled"
 Void of any subtitle or description, the image depicting only the traces of a bed shared by two people are displayed on billboards throughout the city in multiples of 6. Created in 1991, the same year that Ross, the artist's partner died, the spatial void and the absence of figures seem to reflect his emotional destitute. Alternatively, the open context of the image allows the viewer to project his/her own memories and experiences unto the scene. The artist's strategic displacement of the private act into the public sphere reflects the disintegrating boundarie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realms in our contemporary culture.

Leelum Lobby
 In addition to the two complementing light installations "Untitled"(North) and "Untitled"(For Stockholm), the exhibition presents another simultaneous presentation of a unique work by installing "Untitled"(Beginning) at both the PLATEAU Glass Pavilion and Leelum lobby. "Untitled"(Beginning) emphasizes one of the distinctive aspects Gonzalez-Torres's oeuvre, the work's direct physical relationship with the viewer. Installed to cover an entrance or a doorway, the beaded curtain makes physical contact with the work unavoidable for the entering viewer. The beads, like the disappearing candies, can be understood as a bodily metaphor for the present a much more intimate and sensual experience. Considering the compulsive social phobia towards physical contact during the AIDS crisis, the work reveals a dark reality where beautiful expression of love becomes a dreaded fear.

PLATEAU & Leelum
 "Untitled"(Perfect Lovers)
 "Untitled"(Perfect Lovers) is a pair of identically round, ready-made wall clocks, with their batteries synchronized to the same time upon installation. Although their synchronous movement seems interminable, the clocks eventually fall out of sync due to the mechanical glitches, and one clock ultimately expires before the other. Considering the artist's relationship with his lifelong partner, Ross, who battled with AIDS for most of the 8 years together, every minute and second of time resonates with exceptional poignancy. At the same time, their identical shapes also allude to homosexuality, expressing the artist's subtle yet powerful statement against social prejudice.
 For the first time, all 3 editions of the work will be brought together in a single exhibition. The editions will be displayed at different locations including the PLATEAU entrance, Art Shop and the Leelum ticket office, each providing a unique and diverse encounter with the work.

PLATEAU & Scocho Tower
 "Untitled"(Rossmore II)
 Another candy spill work in the exhibition, "Untitled"(Rossmore II) will be simultaneously on display at PLATEAU and the lobby of Samsung Life Scocho Tower. Evoking the memories of their last days together, the subtitle 'Rossmore', alludes to Rossmore Avenue, the road where the artist lived with his partner until his death. The artist also stated that he especially loved the name of the place as it also coincidentally meant "more Ross". As if reflecting the fading memories of the past in one's mind, the diminishing candies bring particular poignancy to the work.
 Outdoor Billboards "Untitled"
 Void of any subtitle or description, the image depicting only the traces of a bed shared by two people are displayed on billboards throughout the city in multiples of 6. Created in 1991, the same year that Ross, the artist's partner died, the spatial void and the absence of figures seem to reflect his emotional destitute. Alternatively, the open context of the image allows the viewer to project his/her own memories and experiences unto the scene. The artist's strategic displacement of the private act into the public sphere reflects the disintegrating boundarie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realms in our contemporary culture.

1

2

3

4

5

6

